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he Effect of Variables on Attitudes and Preparations toward Retirement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배문조
부교수 전귀연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Bae, Moon Jo

Associator professor : Jeon, Kwee Ye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causing the attitudes and preparations toward retirement. Tow hundred eight employe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come, age, sex, self-esteem, attitudes toward job, family, and leisure affect the attitudes toward retirement.

Second, income and attitudes toward leisure affect economic preparations.

Third, age, attitudes toward family and leisure affect psychologic preparations.

Fourth, age, self-esteem, locus of control, and attitudes toward leisure affect physical preparations.

주제어(Key Words): 은퇴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retirement), 은퇴준비(preparation to retirement), 직업만족도(job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Bae, Moon Jo,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370 Sankyuk Dong, Puk-ku Deagu, Korea, 702-701 Tel: 82-53-950-6210 Fax: 82-53-950-6209 E-mail: moonjonim@hanmail.net

I. 서론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2000년에 7.1%로 높아져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통계청, 2000).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4%에 이르는 기간이 24~115년이 걸린 데 비해 우리나라는 불과 19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2019년에는 14.4%, 2026년에는 20%에 이르러 고령화현상이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디지털조선일보, 2002. 7. 09).

이와 더불어, 핵가족화의 추세는 효도, 부양의식의 약화 및 노인의 권위의 약화까지 겹쳐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조차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은퇴 후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은퇴 후의 노년의 삶은 단순히 생존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생존으로서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는 주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전길양·송현애·고선주·김일명, 2000).

또한 미래의 노인들은 오늘의 노인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조건에 처하게 된다. 과거와 현재의 노인들에게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빈곤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면 미래의 노인들은 상당한 건강을 유지할 뿐 아니라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게 될 것이고(박석돈, 2002) 퇴직 이후의 시간이 더 길어져 퇴직 이후 삶의 준비가 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의 변화된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인식하면서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자초의 노력에 의해 스스로 긍정적인 노후를 구축하도록 하는 의식의 전환 및 은퇴 이전에 적극적인 은퇴준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은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극히 근래의 일이며 구체적으로 은퇴와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이는 전체 인구 중 비경제활동 인구의 규모가 커진

것이 주요한 배경 요인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은퇴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은퇴에 따른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심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권문일, 1996). 또한 은퇴자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노후생활에 적응하는가 하는 것은 은퇴 이전에 개인이 갖고 있던 조건이나 환경 및 준비에 의해서 은퇴를 각기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Maddox, 1970). 따라서 은퇴 이전에 이들이 가진 태도와 은퇴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은퇴이후 삶을 전망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의의있는 일이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은퇴에 대한 태도와 은퇴준비

Miller(1965)는 은퇴를 하나의 위기로 보았다. 그는 은퇴를 지위의 상실, 자아정체감의 상실, 비생산적인 여가시간, 무능력하다는 사회적 낙인 혹은 남성적이지 못하다는 낙인 등으로 인한 커다란 위기로 보았다. 이에 비하여 Atchley(1971)는 은퇴를 일생의 연속적인 한 부분으로 보고 인생주기에 있어 오래 전부터 예견해온 단계로 여겼다. 그러므로 은퇴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비통해 하거나 부적응 상태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애순·윤진, 1995). 어떤 사람들은 은퇴를 자유의 시기로 고대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은퇴를 수동적이고 단조로우며,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여 은퇴하기를 두려워한다(Fretz & Merikangas, 1992).

이러한 맥락에서 은퇴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연구를 보면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다. Atchley(1977)는 은퇴한 노인들은 은퇴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개인들 스스로도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한 계획을 젊은 시절부터 세우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연금제도 등의 노인복지정책의 수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에 은퇴 후의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년기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이승아·한경혜(1998)의 연구에서는 은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중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퇴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퇴직 전부터 지속적인 생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Ekerdt, Bosse, & Moge(1980)는 은퇴에 대한 관점이 초기 중년기에는 긍정적이었다도 실제 은퇴에 접근함에 따라 덜 긍정적으로 된다고 했다. 은퇴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은퇴준비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들(McPerson & Guppy, 1979)이 있지만 오늘날 연구들은 오히려 은퇴준비가 은퇴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Glamser, 1981; Kim, 1992)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년기는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고 의미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인생의 결실기이자 완성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겪게되는 시기이다(임경자, 2002). 이러한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삶의 설계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외에도 건강관리, 노후자금 확보 및 취미생활과 관련한 은퇴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직장에 다니는 동안 각자의 능력을 재고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그 중 경제적 준비와 관련한 이지은(200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은퇴 이후 경제적 준비는 자신의 현재연령보다 앞선 시기에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대책을 세우는 목적은 여유있고 보람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소득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의존적인 존재로 몰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후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찍부터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노화에 따른 신체변화는 사람마다 다양하나 노년기의 생활을 예측함에 있어 건강은 대단히 중요하다. 노후대책을 세울 때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은 건강문제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노후의 건강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김미경, 1992) 은퇴이후 신체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인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길어진 생의 마지막 부분을 의존적이고 걸림돌이 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존재로서 살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노년학개론, 2000). 이러한 맥락에서 은퇴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을 돕는 사회적 기회와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장되어 가는 노년기의 삶의 질은 많은 경우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준비정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준비는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고,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준비를 통해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적응능력을 증진시키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은퇴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2. 은퇴에 대한 태도와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 개인변인

퇴직근로자들의 퇴직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이택룡(1994)은 소득에 따라서도 은퇴 기피도에 차이가 있다고 밝히면서 저소득층이 퇴직하기를 가장 기피한다고 하였으며 재정상태는 은퇴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Parnes & Gilbert, 1981)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노후를 대비한 재정계획 및 수행에 관해 연구한 김은정(1993)의 연구에서는 노후대비 재정계획이 당면과제라 인식한 사람이 전체의 90%를 차지해 노후준비에 대한 목표설정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후준비를 위해 실제적으로 자신의 자원을 평가한 사람은 전체의 40%정도에 불과해 아직도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가영·조일현·이의훈(2001)의 연구에서 60세 이상까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다면 행

복할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볼 때 퇴직 후 만족스런 생활을 할 수 있는가는 그들이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가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날 것이다. 따라서 소득뿐만 아니라 은퇴예상 연령에 따라 은퇴에 대한 태도 역시 달라질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변인이 은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의 은퇴와 관련한 연구들은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신화용·조병은, 1999; 지연경·조병은, 1991; 김향은·정옥분, 1992; 김애순·윤진, 1995; 최가영·조입현·이의훈, 2001; 최성재, 1989; 김미혜, 1993; 이승아·한경혜, 1998; 이택룡, 1994)들이 대부분이다. 은퇴를 남성의 현상으로 보는 이러한 개념은 남성의 지위와 정체성이 직업을 통해 획득되는데 반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주로 가족의 역할을 통해 나온다는 데서 기초한다. 그러나 여성의 역할도 교육수준의 향상 및 맞벌이가족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이제 은퇴의 문제는 점차 여성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Erdner & Guy, 1990).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제도적 정년이 55세이고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일찍 직업세계에 들어서고 일찍 퇴직을 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취업을 한 시점부터 은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40·5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김미혜, 1993; 김연옥, 1992; 허정무, 1998; 이승아, 1998).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정년퇴직이나 노화에 관한 자각과 인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5세 정도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고, 보다 풍부하고 충실한 인생의 준비를 고려한다면 직업적 생활단계의 취업안정기에 들어선 35세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있다(허정무, 1998). 그러나 점차로 노동기간과 은퇴후 기간이 동일해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Gaultier, 1990), 직업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20대부터 남·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여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정도를 살펴봄으로써 각 연령에 맞는 은퇴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의의있는 일이 될 것이다.

2) 은퇴변인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면, 그 이후의 행동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 중에서 퇴직과 관련해서 중요한 태도는 직업에 대한 태도와 현재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중요한 변인이다. 또한 퇴직 후 생활에서 여가시간이 증가되므로 여가에 대한 태도와 어느 시기나 가족은 인간의 주된 생활이므로 가족에 대한 태도는 은퇴 후 생활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성미애, 1999).

특히, 최근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노동이나 일의 역할보다 생활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은 여가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어 여가활동의 욕구나 동기, 여가활동유형에 대한 계획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노인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과거와 달리 긴 노년기를 보내게 되므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준비와 함께 여가활동에 대한 계획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가활동은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인이며, 은퇴한 여성의 경우 풍부한 취미활동을 발전시켜 은퇴이후 제2의 직업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하였다(Hayes, 1991). 또한 퇴직 후의 여가활동은 퇴직 후 생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온 여가활동이 새로이 추구하는 여가활동보다 생활의 만족을 준다고 보고되었다(Bischof, 1976; Jacobson, 1974). 이러한 연구로 미루어 볼 때, 본인에게 적합한 취미와 사회활동을 선택하여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은퇴이후의 노후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서구의 경우 은퇴한 사람의 다수가 전업으로 다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Lewis, 1995),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취업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대부분 단순한 육체노동에 한정되어 있어 현대노인이 자신을 융통성있게 변화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 직업이란 단순한 경제적인 욕구 충족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때, 이들에게 맞는 취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서경

회(1995)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71.1%가 퇴직 후 재취업을 희망했으며, 그 이유도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만족도(Hanisch & Hulin, 1991; Taylor & Shore, 1995; 이택룡, 1994)와 직업의 종류(Goudy et al., 1980; 이승아, 1998) 역시 은퇴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으며 높은 수준의 직업만족도는 부정적인 은퇴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Fretz, Klug, Osana, Jones & Merikangas, 1989).

가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최선의 삶의 방식이 제도화된 것이다(이광규·김태현·최성재·조홍식·김규원, 1996). 그러므로 가족이 중심적인 조직망이 되는 퇴직기에는 가족으로의 통합이 중요한 과제이며, 생활만족도를 향상시켜주는 요인이 된다(장인협·최성재, 1992). 퇴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김정현, 1995)에서도 배우자와 자녀는 퇴직자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지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선옥(1997)의 퇴직준비교육요구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 은퇴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심리변인

노년기에 있어 은퇴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서 은퇴를 내적통제 또는 외적통제신념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의 결과 혹은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가에 따라 은퇴에 대한 태도나 준비는 달라질 것이다. 내외통제성과 은퇴 후 적응과의 관계에서 Baker(1976), Kivertt(1976)는 내적인 통제신념을 가진 사람이 생활만족도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고 자아정체감 유지 및 더 나은 적응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또한 지연경·조병은(1991)의 연구에서도 내외통제성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자아존중감과 내외통제성이 은퇴에 대한 태도와 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문제

1. 개인변인, 심리변인, 은퇴변인이 은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1-1) 개인변인, 심리변인, 은퇴변인이 은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개인변인, 심리변인, 은퇴변인이 은퇴준비(경제적 준비, 심리적 준비, 신체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2-1) 개인변인, 심리변인, 은퇴변인이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2-2) 개인변인, 심리변인, 은퇴변인이 심리적 준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2-3) 개인변인, 심리변인, 은퇴변인이 신체적 준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에 거주하는 20대에서 60대의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남·여 20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은퇴에 대한 태도: 지연경·조병은(1991), Staples(1998)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총 11문항(예: 나는 퇴직을 생각하면 불안하다)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Cronbach α 값은 .88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의 척도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Cronbach α 값은 .82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내외통제성: Berrenberg(1987)가 개발한 Belief in Personal Control Scale(BPCS)를 사용하였으며 총 28문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내 용	빈 도(%)		내 용	빈 도(%)
성별	남	115(55.3)	건강 상태	매우 나쁨	1(0.5)
	여	92(44.2)		나쁨	18(8.7)
학력	초등졸업~중학교졸업	6(2.8)	소 득	보통	111(53.4)
	고등학교졸업	41(19.7)		건강함	69(33.2)
	대학교졸업이상	157(75.5)		매우 건강함	7(3.4)
연령	20대	61(29.3)	소 득	100만원 이하	29(13.9)
	30대	65(31.3)		101만원~200만원	90(43.3)
	40대	52(25.0)		201만원~300만원	56(27.3)
	50대	23(11.1)		301만원~400만원	25(12.0)
	60대	6(2.9)		400만원 이상	5(2.4)
직업	전문직	78(37.5)	은퇴예상 연령	20대	4(1.9)
	관리직	10(4.8)		30대	16(7.7)
	사무직	61(29.3)		40대	30(14.4)
	판매-서비스직	12(5.8)		50대	74(35.6)
	생산-노무직	16(7.7)		60대	67(32.2)
	자영업	10(4.8)		70대	4(1.9)
	농업 및 어업	4(1.9)	전체		208(100)
	기타	14(6.7)			

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Cronbach α 값은 .82였으며, 이 문항 중 외적통제 문항을 역점수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4) 은퇴준비: 서경희(1995)의 질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 요인분석한 결과 신체적 준비에 관한 질문(예: 나는 성인병같은 질병에 대비해 평소 식생활에 주의하고 있다) 4문항, 심리적 준비에 관한 질문(예: 나는 친구들의 모임에 자주 참여한다) 5문항, 경제적 준비(예: 나는 노후를 대비해 계획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다)에 관한 질문 7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Cronbach α 값은 .71, .60, .84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은퇴변인: 성미애(1999)의 연구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직업에 대한 태도에 관한 질문 9문항(예: 직업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 직업만족도 8문항(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매우 보람을 느낀다), 여가의 필요성 인식 6문항(예: 여가활동은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가족중심적 사고 6문항(예: 나이가 들수록 가

족이 더 소중한진다)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Cronbach α 값은 .77, .86, .83, .82였다.

IV. 결 과

개인변인, 심리변인, 은퇴변인이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계수를 분석한 결과(〈표 2〉참고)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수는 .52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인들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개인변인, 심리변인, 은퇴변인이 은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은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개인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한 1단계에

<표 2>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2	-.373*													
3	-.520*	.456*												
4	-.265*	.448*	.262*											
5	-.079	-.008	-.015	.102										
6	.099	-.046	-.080	.076	.463*									
7	.081	.049	.081	.281*	.092	.280*								
8	.023	.110	.066	.117	.251*	.343*	.456*							
9	-.033	-.068	.068	-.046	.106	.201*	.032	.243*						
10	-.236*	.093	.206*	.074	.145*	.210*	.132	.378*	.372*					
11	-.159*	.107	.249*	.042	.071	.079	.159*	.139*	.158*	.152*				
12	-.141*	.370*	.296*	.249*	-.076	.142*	.200*	.179*	.130	.111	.383*			
13	-.062	-.052	.145*	.135	.182*	.239*	.230*	.257*	.275*	.290*	.206*	.216*		
14	.145*	-.140*	-.004	-.001	.043	.166*	.068	-.160*	.138	-.144*	.019	.020	.085	
M	1.44	37.19	2.45	52.83	3.50	2.92	3.05	3.92	4.05	4.16	3.04	2.81	3.28	3.35
SD	.50	10.47	.96	10.22	.37	.38	.66	.50	.55	.56	.73	.83	.55	.74

*P<.05

1.성별, 2.연령, 3.소득, 4.은퇴예상연령, 5.내외통제성, 6.자아존중감, 7.직업만족도, 8.직업에 대한 태도, 9.여가의 필요성 인식, 10.가족중심적사고, 11.경제적 준비, 12.신체적 준비, 13.심리적 준비, 14.은퇴에 대한 태도

<표 3> 은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독립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은퇴에 대한 태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개인 변인	소득	.13	.18*	.13	.18*	.147	.20*	
	성별	.28	.19*	.26	.18*	.213	.15*	
	연령	-2.0E-02	-.29*	-1.9E-02	-.30*	-1.6E-02	-.23*	
	은퇴예상연령	6.410E-03	.091	5.420E-03	.08	4.595E-03	.07	
심리 변인	자아존중감			.21	.12	.30	.17*	
	내외통제성			-4.2E-02	-.02	4.971E-02	.03	
은퇴 변인	직업만족도					.14	.14	
	여가의 필요성 인식					.28	.22*	
	직업에 대한 태도					-.42	-.29*	
	가족중심적 사고					-.29	-.23*	
F			4.543**		3.406**		5.175***	
R ²			.10		.11		.24	
R ² 증가량			.10		.01		.13	

*P<.05 **P<.01 ***P<.001

서는 소득($\beta=.18$), 성별($\beta=.19$), 연령($\beta=-.29$)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소득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은퇴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심리변인을 분석에 포함시킨 2단계에서는 설명력이 10%에서 11%로 증가하였고 소득($\beta=.18$), 성별($\beta=.18$), 연령($\beta=-.30$)이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나 심리변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로 독립변인에 은퇴변인을 추가하여 투입하였을 때 자아존중감($\beta=.17$), 여가의 필요성 인식($\beta=.22$), 직업에 대한 태도($\beta=-.29$) 및 가족중심적 사고($\beta=-.23$)가 은퇴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어 자아존중감이 높고, 여가의 필요성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직업에 대한 태도와 가족중심적 사고는 부정적일수록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24%였다.

2. 개인변인, 심리변인, 은퇴변인이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 결과, 개인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한 1단계에서는 소득($\beta=.2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심리변인을 투입했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3단계로 은퇴변인을 투입한 결과 여가의 필요성 인식($\beta=.16$)가 경제적 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어, 여가의 필요성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경제적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변인의 설명력은 13%였다.

3. 개인변인, 심리변인, 은퇴변인이 심리적 준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심리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개인변인을 투입한 1단계에서는 소득($\beta=.21$), 연령($\beta=-.24$), 은퇴예상연령($\beta=.20$)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소득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은퇴예상연령이 높을수록 심리적 준비를 보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심리변인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은퇴예상연령은 더 이상 유

<표 4>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독립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경제적 준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개인 변인	소득	.19	.25*	.19	.25*	.15	.20*		
	성별	-1.6E-03	-.00	-1.8E-02	-.01	-7.6E-02	-.05		
	연령	2.289E-03	.03	3.286E-03	.05	5.322E-03	.08		
	은퇴예상연령	-2.7E-03	-.04	-4.3E-03	-.06	-8.0E-03	-.11		
심리 변인	자아존중감			.24	.13	.103	.06		
	내외통제성			3.177E-02	.02	3.930E-02	.02		
은퇴 변인	직업만족도					.15	.14		
	여가의 필요성 인식					.22	.16*		
	직업에 대한 태도					8.934E-02	.06		
	가족중심적 사고					-7.2E-02	-.06		
F		3.05*		2.61*		2.48*			
R ²		.07		.08		.13			
R ² 증가량		.07		.01		.05			

*P<.05 **P<.01 ***P<.001

〈표 5〉 심리적 준비에 미치는 독립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심리적 준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개인 변인	소득	.12	.21*	.12	.22*	7.995E-02	.14
	성별	-6.5E-04	-.00	-1.3E-02	-.01	-3.5E-02	-.03
	연령	-1.2E-02	-.24**	-1.1E-02	-.21*	-9.1E-03	-.18*
	은퇴이상연령	1.057E-02	.20*	8.040E-03	.15	5.534E-03	.10
심리 변인	자아존중감			.30	.22*	.15	.11
	내외통제성			.14	.10	.11	.08
은퇴 변인	직업만족도					6.975E-02	.09
	여가의 필요성 인식					.21	.21*
	직업에 대한 태도					.17	.15*
	가족중심적 사고					4.626E-02	.05
F		3.43**		4.99***		5.53***	
R ²		.07		.15		.25	
R ² 증가량		.07		.08		.10	

*P<.05 **P<.01 ***P<.001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아존중감($\beta=.22$)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7%에서 15%로 증가하였다. 3단계로 은퇴변인을 투입한 결과 연령은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나 소득과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은 사라졌는데, 이는 소득과 자아존중감은 은퇴변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은퇴변인 중 여가의 필요성 인식($\beta=.21$)와 직업에 대한 태도($\beta=.15$)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25%였다.

4. 개인변인, 심리변인, 은퇴변인이 신체적 준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신체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개인변인을 투입한 1단계에서는 소득($\beta=.21$)과 연령($\beta=.25$)이 신체적 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과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적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심리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과 연령이 여전히

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고, 자아존중감($\beta=.28$)과 내외통제성($\beta=-.21$)이 신체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8%에서 24%로 증가하였다. 은퇴변인을 분석에 포함시킨 3단계에서는 여가의 필요성 인식($\beta=.20$)가 신체적 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29%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오늘날 직장인의 은퇴에 대한 태도와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직업에 대한 태도, 연령, 가족중심적 사고, 여가의 필요성 인식, 소득, 자아존중감, 성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은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직장인이 직업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직업으로부터 얻는 위신

〈표 6〉 신체적 준비에 미치는 독립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신체적 준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개인 변인	소득	.18	.21*	.17	.19*	.14	.16
	성별	7.828E-02	.05	-4.7E-03	-.00	-7.1E-02	-.04
	연령	2.010E-02	.25**	2.101E-02	.26*	2.281E-02	.28***
	은퇴예상연령	8.440E-03	.10	7.185E-03	.09	4.456E-03	.05
심리 변인	자아존중감			.60	.28***	.48	.23**
	내외통제성			-.47	-.21**	-.49	-.22**
은퇴 변인	직업만족도					6.113E-02	.05
	여가의 필요성 인식					.32	.20**
	직업에 대한 태도					.21	.12
	가족중심적 사고					-.18	-.12
F		9.23***		8.96***		6.90***	
R ²		.18		.24		.29	
R ² 증가량		.18		.06		.05	

*P<.05 **P<.01 ***P<.001

과 보상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은퇴를 상실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 중심적 사고가 긍정적일수록 은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가족이 소중하고 가족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은퇴가 가족의 안정된 삶을 위협하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퇴를 보다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의 필요성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은퇴에 대한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여가가 삶의 질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여가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사람은 퇴직 이후 주어지는 많은 시간이 자신이 직장에 다니면서 미루어 왔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퇴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 정도와 여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퇴직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정현, 1995; 김희정, 1997, Richardson & Kilty, 1992)와도 일치한다.

자아존중감이 은퇴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은퇴를 자연스러운 발달단계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득이 높고 연령이 낮

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은퇴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은 현재의 소득으로 퇴직 후 경제적 형편도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지각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여성이 은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은 직업과 퇴직을 남성의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 가족 내에서도 여성의 은퇴보다 남성의 은퇴를 보다 큰 위기로 여기며, 정년에 가까울수록 퇴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변인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심리변인의 설명량이 1%로 개인변인과 은퇴변인보다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은퇴라는 사건이 자아존중감과 내외통제성과 같은 주관적 마음가짐보다는 생계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직업환경이나 가족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은퇴를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소득과 여가의 필요성 인식 순이었다. 즉, 소득이 높고

여가의 필요성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경제적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재테크나 저축과 같은 경제적인 준비에 잘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경제적 준비가 가계소득과 관련이 있다는 임경자(2002)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레저나 취미활동과 같은 여가생활은 여가시간 및 경제적 수준과 관련되므로 여가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고 여가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은퇴 이후 여가생활을 위해 경제적인 준비를 더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변인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에서 심리변인이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경제적 준비가 심리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소득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소득이 경제적 준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경제적인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심리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여가의 필요성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연령, 직업에 대한 태도 순이었다. 즉 여가의 필요성 인식과 직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심리적 준비를 보다 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여가의 필요성 인식이 긍정적인 사람은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같은 모임을 가질 뿐 아니라 취미생활을 통한 심리적인 준비를 보다 잘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평소에 자신을 위한 능력 개발이나 건전한 친목모임을 가짐으로써 은퇴이후에 많은 사람이 겪게 되는 불안이나 고독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에 대비하여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연령이 낮은 사람일수록 심리적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친목도모를 통해 인간관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여가와 취미생활에 보다 많은 가치를 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변인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에서는 개인변인과 심리변인보다 은퇴

변인이 10%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변인들이 직업 및 가족, 여가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과 관련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심리적 준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가의 필요성 인식이 심리적 준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일찍부터 다양한 동호회나 자기개발을 통한 자기관리는 은퇴 이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신체적 준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연령이었고 그 다음이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여가의 필요성 인식 순이었다. 즉 연령이 높고 여가의 필요성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신체적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50대 이상의 은퇴를 앞두고거나 이미 은퇴한 남성들이 은퇴이후를 대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서경희(1995)와 임장순(1990)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퇴직에 가까워지는 사람일수록 건강검진이나 운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관리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체적 준비를 잘하고 있으며, 내적통제가 강할수록 신체적 준비를 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의 90% 이상이 보통이상의 건강상태를 현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건강관리나 신체적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적통제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어떠한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건강관리는 보다 의학적이고 전문적 지식과 관리를 요구하는 분야로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외통제성 및 자아존중감을 은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파악한 국내 연구가 거의 없어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변인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에서 개인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인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이 보장되어야 하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증가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직장인의 은퇴에 대한 태도와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봄으로써 직장인이 은퇴 이후 삶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직장인들이 은퇴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여가와 직업, 가족중심적 사고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직업중심적 사회에서 은퇴라는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과 좌절을 안겨주는 현실을 감안하면 일찍부터 은퇴준비를 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소득과 여가의 필요성 인식이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자신의 취미생활개발은 물론 이러한 취미나 여가 생활의 바탕이 되는 금전관리는 은퇴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정적인 수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은퇴 이후 길어진 삶을 위해서는 재테크와 같은 전문적인 은퇴계획을 위하여 관련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은퇴준비의 하위변인 중에서 여가의 필요성 인식이 심리적 준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취미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한 좋은 인간관계 형성은 은퇴 이후 노년기 삶을 심리적으로 보다 안정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리라 생각된다.

넷째, 신체적 준비를 통해 건강한 은퇴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여가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함양과 더불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보다 이른 연령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 한계점이 있으나 추후에는 직장인 뿐만 아니라 은퇴자도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이 은퇴 전에 어느 정도 은퇴준비를 하며 이러한 준비가 추후 은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또한 은퇴자 및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단순한 지식 및 정보 전달 차원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은퇴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권문일(1996). 노인의 퇴직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미경(1992). 중년층의 노년생활준비 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혜(1993). 노년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모형의 개발. 한국노년학, 13(2), 15-29.
- 김성순(1984).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애순, 윤진(1995). 은퇴이후의 심리·사회적 영향. 한국노년학, 15(1), 141-158.
- 김연옥(1992). 퇴직예정자의 퇴직태도 및 퇴직 후 계획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
- 김은정(1993). 노후를 대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계획 수행. 서울대석사학위논문.
- 김향은, 정옥분(1992). 정년 퇴직을 앞둔 중년 남성의 심리적 불안. 대한가정학회지, 30(2), 159-169.
- 디지털조선일보 2002. 7. 9. 살고싶은 나라 만들기-정년제 폐지하자.
- 박석돈(2002). 노인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평가. 복지행정논총, 12(1), 25-45.
- 서경희(1995). 은퇴자를 위한 퇴직전 준비교육의 활용방안.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화용, 조병은(1999).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상호작용 특성과 결혼만족도. 한국노년학, 19(1), 31-44.
- 이승아, 한경혜(1998). 중년기 직장 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계획. 대한가정학회지, 36(5), 125-135.
- 이지은(2000).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 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택룡(1994). 퇴직 근로자들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프로그램 욕구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겨울호, 139-162.
- 임경자(2002).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장순(1990). 도시인의 노후생활 대책에 관한 의식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길양, 송현애, 고선주, 김일명(2000). 노년기준비교육 프로그램. *한국노년학*, 20(1), 69-91.
- 정동희(1991). 한국기업정년 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지연경, 조병은(1991). 내외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217-240.
- 최가영, 조일현, 이의훈(2001). 노년기근로자의 퇴직 현상에 관한 심층적 연구. *한국노년학*, 21(1), 73-92.
- 최성재(1989). 퇴직예정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생활전망의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창간호, 47-65.
- 통계청(2000). 통계로 보는 한국의 모습.
- 허정무(1993). 교원의 정년퇴직준비과정과 퇴직 후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tchley, R. C. (1971). Retirement and work orientation. *The Gerontologist*, 11, Spring, 29-32.
- Atchley, R. C. (1975). Adjustment to loss of job at retir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Human Development*, 6, 17-27.
- Atchley, R. C. (1977). *The Social Factors in later Life*, 2nd ed., Wadsworth Publishing Com. Inc.
- Atchley, R. C. (1991).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6th ed.). Belmont, CA. Wadsworth.
- Atchley, R., & J. Robinson, J. (1982). Attitudes toward retirement and distance from the event. *Research on Aging*, 4(3), 299-313.
- Baker, E. K. (1976). Relationship of retirement and Satisfaction with life events to Locus of Control,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7(9B), 4748.
- Bischof, L. (1969). *Adult Psychology*. N. Y. : Harper & Row.
- Jacobson, D. (1974). Planning for retirement and anticipatory attitudes toward withdrawal from work. *British Journal of Guidance Counseling*, 2, 72.
- Ekerdt, D. J., & Bosse, R. (1985). Proximity to Retirement and Anticipatory Involvement: Findings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40(3), 368-374.
- Ekerdt, D. J., Bosse, R., & Morgey, J. M. (1980). Concurrent change in planned and preferred age for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35, 232-240.
- Erdner, R. A., & Guy, R. F. (1990). Career identification and women's attitudes toward retir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0(2), 129-139.
- Fretz, B. R., & Merikangas, M. W. (1992). Preretirement programing: Needs and responses. In L.H.Daniel(Ed.), *Adult career development: Concepts, issues, and practices*, Alexandria, VA: 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
- Fretz, B. R., Klug, N. A., Osana, S. M., Jones, S. M., & Merikangas, M. W. (1989). Intervention targets for reducing preretirement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301-307
- Gaultier, X. (1990). What future for older workers? *Ageing International*, June.
- Glamser, F. (1981). Predictors of retirement attitudes. *Aging and Work*, 4, 23-29.
- Goudy, W. J., Powers, E. A., Keith, P. M., & Reger, R. A. (1980). Changes in Attitude Toward Retirement: Evident from a Panel study of Older males. *Journal of Gerontology*, 35(6), 942-

- 948.
- Hanisch, K. A., & Hulin, C. L. (1991). General attitudes and organizational withdrawal: An evaluation of a casual mod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 110-128.
- Hayes, C. L. (1991). Women and retirement: The harsh reality. *Best's Review*, 92(3), 71-72.
- Howard, J., Marshall, J., Rechnitzer, P., Cunningham, D., & Donner, A. (1982). Adapting to retirement.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30(8), 488-500.
- Kivertt, V. A. (1976).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predictors of locus of control among middle aged adul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7(5B), 2481.
- Lewis, R. (1995). A technique for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Archives of Psychology*, 140.
- Maddox, G. L. (1970). Adaptation to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10, Spring, 14-18.
- Maddox, G. L. (1970). Adaptation to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10, Spring, 14-18.
- McPerson, B., & Guppy, N. (1979). Preretirement lifestyle and the degree of planning for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34(2), 254-263.
- Miller, S. (1965). The Social dilemma of the aging leisure participant. In W. Rose, & W. Peterson(Eds.), *Older people and their social world*. Philadelphia: F. A. Davis Co. 77-92.
- Parnes, H. S. J., & Gilbert, N. (1981). The retirement experience. In H. S. Panes(Ed.). *Work and retirement: A longitudinal study of men*. Cambridge, MA: MIT Pres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Y.
- Staples, P. A. (1998). *Attitudes toward Retirement and lifelong Career Development among Adolescents, Young Adults, and Midlife Adults*.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Taylor, M. A., & Shore, L. M. (1995). Predictors of planned retirement age: An application of Beehr's model. *Psychology and Aging*, 10, 76-83.
- Tibitts, C., & Donahue, W. (1962). *Social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aging around the world*.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년 11월 27일 접수, 2004년 5월 28일 채택)